

산자부, 10대 핵심 부품·소재에 5년간 1조5000억원 투입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10대 전략 부품·소재 선정 보고대회'를 열고 부가가치가 높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부품·소재 10대 전략 품목을 선정·발표했다. 10대 품목의 기술개발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10개 대기업과 40여 개 부품·소재 중소·벤처기업이 품목별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며, 향후 5년간 기술개발(3800억원)과 상용화(2300억원), 제품양산(8500억원) 등에 약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민간의 투자계획에 연계, 기술개발 자금 중 1900억~2500억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10대 품목에는 전기·전자 부문에서 LCD, OLED, 투명 CNT 복합소재, RF 임베디드 기판, 근거리 무선통신 복합모듈 등 5개, 자동차 부문에서 초저배출가스 대응 기술린 차량용 동력계 제어시스템 등 3개, 기계 부문에서 다계통 복합기계용 자율제어장치 모듈 등 2개가 선정됐다. 산자부는 "그동안 수요 대기업의 국내 부품·소재에 대한 구매 기피로 중소·벤처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해도 사업화에 한계가 있었다"며 "부품·소재의 개발 단계부터 대기업이 참여, 기술개발에 의한 원천기술과 판로 확보, 대기업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구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10대 핵심부품·소재에 대한 중복성 및 사업비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오는 4월 중 사업을 공고하고, 6월 중 개발에 착수 할 방침이다.

산자부, '중소기업 현장체험단' 발대식

산업자원부가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중소기업 현장체험단'이 올해부터 정부부처 합동으로 참여기로 한 가운데 지난 달 22일 산자부 대회의실에서 '2005년도 제1차 정부합동 중소기업 현장체험단 발대식'을 갖고 중소·벤처기업이 직면한 애로를 적극 발굴해 해소해 나가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중소·벤처기업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중소기업 현장체험단 활동은 올해부터 산자부·재경부·문광부·여성부·공정위 등 17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활동으로 확대 시행된다. 산자부 이희범 장관은 "중기체험단 활동이 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수립, 찾아가는 규제개혁,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의 효과성 점검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중기체험단 활동을 통해 기업현장의 수요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규제를 찾아가 발굴하며 각종 지원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월 1회 참여를 원칙으로 연간 총 200~300개 기업에 연인원 1000여 명의 체험단을 파견하고, 발굴된 애로사항은 매 분기별로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통부, 산업현장 EMC 애로기술 직접 지원나서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는 국제적으로 전자파적합성(EMC)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 EMC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벤처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 IT기업들을 대상으로 EMC 분야 기술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 IT기업에게 효율적인 EMC 기술지원을 위해서는 제품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개발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설립된 한국전파진흥협회 내에 부설기관으로 'EMC기술지원센터'를 설치·운영중이며 2005년에는 동 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EMC 애로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년에 중점 추진 사업은 ▲국내 중소·벤처 IT기업들의 제품 개발시 발생하는 EMC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MC 설계 및 대책기술을 직접 지원하고 ▲중소·벤처 IT기업의 수요에 기반하고 산업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실습을 포함한 전문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 ▲중소·벤처 IT기업들에게 EMC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EMC 전문 웹사이트(www.emccenter.or.kr)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EMC 설계·대책 사례집과 동영상 강의 자료를 온라인상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간적·물리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EMC 정보인프라 확대 구축·운영을 통하여 온·오프라인의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중소·벤처 IT기업들이 EMC 문제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인력 공급 애로 해소에 나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등 6개 부처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추진 과정의 인력 공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현장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섰다.

T/F팀은 참여정부의 중요한 국정사업인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추진 현장에서 핵심 연구인력과 대학원생 등 연구 지원인력 및 산업체 생산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는데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것이다. 앞으로 인력 수요 조사에 근거하여 3월 중 인력 양성 방안을 수립하여 4월에 인적자원개발회의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T/F팀의 활동은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인력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중장기적으로 이들 분야를 이끌 차세대 핵심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 1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스타 펀드' 결성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글로벌 스타 펀드'의 운영기관인 일신창업투자(대표 고정석) 및 IMM인베스트먼트(대표 장동우)와 출자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펀드 결성식을 가졌다.

이번에 조성된 2개의 글로벌 스타 펀드는 각기 5천만달러 규모로, 1년내 1억달러 규모로 추가 출자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Global Star Korea Fund, LP(운영기관 : 일신창업투)'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210억원), 군인공제회(150억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75억원), Macquarie (64억원), 일신창업투(17억원)가 출자하였고, 'HCI Private Equity Fund(운영기관 : IMM인베스트먼트)'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210억원), 군인공제회(150억원), 하나은행(78억원), Cambridge(7억원), IMM인베스트먼트(83억원)가 출자하였다.

앞으로 글로벌 스타 펀드는 수출비중이 높은 국내 중소·벤처기업,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벤처기업, 해외 현지·합작법인 등에 5년 이내에 출자약정액의 50%이상을 투자하게 된다.

8년간의 장기 운용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투자대상기업을 발굴·성장시킬 계획이며, 특히 투자 자금공급은 물론,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노하우의 공급 및 해외 네트워크 확보 등 실질적인 지원도 병행하게 된다.

일신창업투자는 Macquarie, IMM인베스트먼트는 하나은행 및 Cambridge Capital과 공동으로 글로벌 스타 펀드를 운용할 투자컨설팅팀을 구성할 예정으로서, 국제적인 투자경험을 가진 펀드매니저가 참여함으로써 펀드의 지명도 제고는 물론, 선진 금융기법 등의 도입으로 국내 벤처캐피탈 업계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진공, 중소기업간 공동 설비투자·기술개발에 2400억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홍경)은 중소기업간 공동협력에 의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협동화자금 예산규모를 작년보다 400억원 증액한 총 2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협동화사업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벤처기업들이 모여서 상호 협력하여 공동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형에 따라 집단화, 공동화, 협업화의 형태로 지원된다. 집단화사업은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일정한 지역에 공장과 그 부대시설을 모아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유형이다.

공동화사업은 중소·벤처업체 혼자서 설치하기 어려운 고가의 생산시설, 연구개발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용하거나, 제품전시판매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이용하는 유형이다.

또, 협업화사업은 경영개선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 원자재구매, 해외시장개척, 마케팅, 품질관리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유형을 말한다. 지원조건은 연리 4.4%에 시설자금의 대출기간은 10년(거치기간5년포함)이며, 협업화자금과 운전자금의 대출기간은 5년(거치기간2년포함)이다.

금년에는 특히 대기업, 지자체,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연계된 협력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협력기업을 위한 단지를 조성하거나 지자체가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해 지역전문화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공단이 적극 참여하여 사전에 사업방향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업유치와 입주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협동화사업자금 신청접수는 중진공 각 지역본부에서 담당하며,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방문하면 협동화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코트라, 해외마케팅에 민간 전문가 활용기로

코트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대기업의 해외 마케팅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을 가진 산업별 전문가를 중소·벤처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7명의 민간 전문가를 선정, 각종 수출 상담회 및 중소기업과의 1:1 수출컨설팅사업인 '수출선도기업육성사업'에 활용한 바 있는데 올해에는 인원을 10명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금년도 민간 전문가 모집에는 미국 뉴욕대, 하버드대, MIT 등의 박사학위를 보유한 고급 인력과 국내외 대학의 전현직 교수, 국내 대기업의 임원급 인사에 이르기까지 총 109명에 달하는 다양한 지원자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며 코트라는 선정에 있어 중소·벤처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현장 실무경험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기보, 산업기반자금 원스톱지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박봉수)은 산업자원부의 산업기반자금을 대하여 용자사업자추천과 신용보증을 원스톱방식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기반자금은 산업자원부가 기업들에게 시설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9개 취급기관을 통해 집행되는 정책자금으로 2005년에는 3개 사업 7개부문, 총 3633억원 규모의 자금이 배정되었다.

산업기반자금을 용자받고자 하는 기업은 기보의 전국 영업점(기술평가센터 포함)에 자금배정 및 신용보증신청을 하면 기보에서 보증심사와 용자사업자선정심사를 거쳐 원스톱방식으로 처리하여 편리하게 소요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기보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혁신신도형 중소·벤처기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자금취급기관으로부터 자금배정을 받고도 담보부족으로 대출을 못 받는 종례의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보는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창업자금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진흥기금,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기금, 문화관광부의 문화산업진흥기금,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중소·벤처창업자금 등에 대하여 원스톱방식으로 보증지원을 하고 있다.

2005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 타당성 평가사업

중소기업청과 한국기술거래소·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기술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자나 창업초기기업의 사업아이템에 대한 기술성·사업성 평가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신기술·신사업의 창업 성공률 제고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해주는 사업을 실시한다.

사 업 내 용

- 지원대상 : 대학생 등 예비창업자와 100인 이하 중소·벤처기업
- 지원형태 : 평가주관기관에 출연금 100% 지원
- 지원과제 : 약 200개(사업비 : 30억원)

- 지원조건 : 과제당 평가비용은 평균 1500만원 한도로 평가주관기관에 지원하며, 신청자는 평가비용의 25%를 부담(현물출자 20%, 현금출자 5%)

신 청 · 접 수

- 접수처 : 평가사업(www.smbafs.or.kr) 또는 한국기술거래소 홈페이지(www.kttc.or.kr)
- 신청기간 : 2005. 3. 18(금) 18:00까지
- ※ 접수한 이후에는 전산등록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접수 기한을 준수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전산등록(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① 인터넷 홈페이지를 접속→ ② 신청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사업계획서를 작성→ ③ 인터넷에 접속→ ④ 신청서를 작성→ ⑤ 사업계획서를 첨부→ ⑥ 접수증 받음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전산등록), 사업계획서 1부(전산상으로 파일 첨부)

※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하고, 사업계획서는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첨부.

VD Scrap



▲ 2005년 2월 15일 매일경제 C1면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이후 코스닥시장이 활황세를 보이고 기관 및 창투사에 투자문의가 잇따르는 등 '제2 벤처붐'에 대한 기대감으로 활기가 도는 벤처업계 모습을 심층 취재한 특집기사



▲ 2005년 2월 22일 디지털타임즈 1면

최근 코스닥지수가 500선을 돌파하고 SNU프리시전같은 성공사례가 나타나는 등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면서 오랜 침체에 빠져있던 벤처캐피털 업계가 벤처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보도한 기사

대덕밸리, 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 본격 가동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기술창업지원단(단장 오준호)은 대덕밸리 벤처기업 중 선도벤처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2개 벤처기업을 '예비 스타기업'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자원부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RIS)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으로 대전에 본사를 둔 유망 중소기업 중 세계 시장에서의 기술 우위 및 시장 성장성이 높은 글로벌 지향 기업, 해외 진출에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 등이 해당된다.

향후 스타기업에 선정되면 정책자금 및 국내외 펀드 유치, 기술개발·마케팅·홍보·컨설팅, 해외 시장 개척, 기업 중심의 산·학·연·관 클러스터 구성 등 기업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육성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또, KAIST 신기술창업지원단 및 교수진을 중심으로 대전전략산업기획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평가센터, 삼일회계 법인 등이 참여해 입체적인 지원 활동에 나서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및 재무제표 등을 작성해 KAIST 신기술창업지원단에 제출하면 된다.

KAIST는 기업 신청 마감 후 서류 현장 방문 및 프리젠테이션 평가를 병행 실시하고 추진위원회의 최종 선정 평가 과정을 거쳐 3월 중순까지 1~2개의 예비 스타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
덕
밸
리

NEWS

여성벤처협회, 2005 이랜서 교육생 모집

여성벤처협회(회장 송혜자)가 2005년을 맞아 'KOVWA이랜서 교육생'을 모집한다. 총 16개 분야별 유·무료 강좌가 마련된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독립심과 프로의식이 강하고 이랜서 강의를 이해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쇼핑몰창업과정, 라이팅이랜서, 디자인커뮤니케이션, 번역사 등의 세부 교과과정을 통해 진정한 전문 1인기업가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참가 신청자에게는 매월 1회 오프라인 세미나 개최와 프로젝트 거래시스템을 통한 양질의 취업정보 제공, 수료증 발급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접수기간은 3월 중순까지이며 참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벤처협회 이랜서 운영 사업부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여성벤처협회 (02-6009-8500)

여
성
벤
처
협
회

NEWS